

보도시점 2025.1.8.(목) 11:00
< 1.9.(금) 조간 >

배포

2026.1.8.(목)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K-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목) 1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 점검하여 새해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반도체·자동차·철강·바이오·소비재 분야별 애널리스트,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수출 전망’ 발제를 통해, “AI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증가, K-컬처 글로벌 확산에 따른 K-푸드, 뷰티 수요 증가 등이 올해 우리 수출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본격화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수입규제 신규 도입 등 통상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중국, 아세안, EU 등 주요 권역별 거시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우리 수출의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해 주요 분야별 애널리스트 및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2025년 K-수출은 연초 암울한 전망을 뒤집고,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K-민주주의 정상화에 따른 시장 신뢰 회복,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 리스크 해소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였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수출이 곧 국민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금융·전시 등 수출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 전시회, 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수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태우(044-203-4020)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044-203-4023)



참고

「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26년 1월 8일(목) 15:00-16:30
- 장소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업종별 전문가, 연구기관, 수출지원기관
 - 정부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과장, 수출입과장
 - 업종 : 반도체, 車, 전기기기, 철강, 바이오, 소비재 분야 애널리스트
 - 연구기관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 지원기관 :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 주요 내용 : '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발제 및 자유 토론

< 회의 진행순서(안) >

일시	주요내용
15:00~15:05 (05')	▶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15:05~15:20 (15')	▶ 발제 • '26년 수출 전망 (무역연) • 지역별 거시경제 전망(미국, 중국, 아세안, EU 등) (KIEP)
15:20~16:30 (70')	▶ 자유토론